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탄신 90돌 특집

주체91(2002)년 4월 17일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운명이고 태양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성에 대해 하신 교시



«나는 김정일동지와 같은 후계자를 둔 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을 가지고 사상이론활동을 벌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능통한 인류역사가 낳은 위인들 중에 위인입니다. 한 인간이 모든 지성과 재능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겸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일동지를 전설적인 위인이라고 합니다.»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양양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영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룩되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영도는 혁명무력건설에서도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올바른 영도의 결과입니다.»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방만한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외국손님들은 우리 나라에서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되어 있고 당의 영도밑에 전체 인민이 승리의 신심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는 것을 보고 모두 감탄하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풍모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해내어야 합니다.»

«김정일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이 따로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건강이 염려되어 좀 휴식하면서 일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계속 무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 있는 영도력과 풍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가 우리의 혁명위업을 훌륭히 계승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되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합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대전성기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영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김정일동지의 영도 밑에 우리 당은 강위력한 불패의 당으로 존엄을 떨치고 있으며 우리 군대는 무적의 강군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인민으로 세인을 놀래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를 주체의 강국으로 일떠 세운 김정일동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운명이며 태양입니다. 오늘 조선은 김정일동지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전진하고 그의 세련된 영도 밑에 김정일조선으로 융성번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가 있기 때문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지구가 깨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 해갈 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의 첫 주체적혁명무력, 항일유격대라고도 불렀으며 창건당시에는 반일인민유격대라고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1932년 4월 25일 중국 간도성 안도현 소사하의 무주툰 토기점골등판에서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핵심으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로써 창건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30년 여름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으며 1931년 12월 명월구회의에서는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면서 상비적혁명무력인 반일인민유격대

를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명월구회의방침에 따라 유격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힘 있게 벌여졌으며 1932년 3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안도현에서 처음으로 소규모의 유격대가 조직된데 이어 동만간지에서 소규모의 유격대가 나왔다. 이에 기초하여 마침내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왕청, 연길, 화룡, 훈춘 지구에서 유격부대들이 편성되고 남만과 북만에서도 유격대오가 조직되었다. 이 시기 유격부대는 지역별에 따라 대대로 구성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34년 3월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시

여 광적으로뿐아니라 질적으로 훨씬 장성강화된 각지의 유격부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우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으로서의 조직개편에 의하여 전 대오는 사령부로부터 사단, 말단단위인 분대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고 통일적인 지휘체계가 확립되었다. 위대한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부대들을 개편하고 확대강화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혁명대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군대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직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였으며 모든 계급적 압박과 착취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무력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무장을 들고 일제와 싸우는 전투대오인 동시에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혁명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적군대였으며 <<전 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전투적 구호를 들고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적혁명군대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여러 사단과 독립련대로 구성되었으며 3. 3제의 군사편제를 원칙으로 하여 사단밑에 련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편성에서는 대대를 두지 않았으며 중대를 기본전투단위

로 설정하였다. 사단은 2~3개의 련대와 독립대대, 경위중대로 편성되었다. 독립대대와 경위중대는 1930년대 후반기에 조직되었다. 사단에는 또한 참모부사업과 정치사업, 후방사업들을 조직집행하는데 필요한 부서들을 두어 부대의 지휘와 관리, 전투행동을 원만하게 보장하게 하였다. 련대는 3개의 중대와 1개의 기관총소대로 구성되었으며 부대의 실정과 활동지대의 특성에 따라 3개이상의 중대를 가진 련대도 있었다. 중대는 3개의 소대와 기관총분대로, 소대는 3개의 분대로 조직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안에는 당적지도를 보장하며 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릴수 있는 정연한 체계가 서 있었다. 사단과 련대에는 정치위원을 두고 중대에는 정치지도원을 두어 당사업을 보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조직되고 사단과 련대에는 정치위원을 두고 당사업을 보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조직되고 사단과 련대에는 당위원회, 중대에는 당세포, 소대에는 당분조가 나왔다. 사단당위원회 집행부서로서 정치부를 두었으며 여기에는 정치주임의 지도밑에 조직과, 선전과, 청년과들이 있었다. 련대에는 정치부를 따로 두지 않고 정치위원이 직접 전반사업을 집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고 인민혁명군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



조직들까지 장악지도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에는 청년들의 대중적혁명조직인 조선반일청년동맹(1936년 3월 이전에는 공청)이 무어 저 당조직의 지도밑에 활동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대내 기관지 신문<<서광>>, 반일청년동맹기관지 신문<<철혈>>, 그리고 대내신문<<전투보>>, <<종소리>> 등을 발간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보장기관으로 무기수리소, 병원, 재봉소, 출판소 등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발은 창건초기에는 붉은 바탕에 <<반일인민유격대>>라고 새긴것이였으나 후에는 붉은 기폭으로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5성상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벌려 일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군은 1948년 2월 정규적인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도 해방된 조국에서 당, 국가 및 무력건설의 기본골간으로 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혁명위업을 직접 계승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어떠한 강적도 물리치고 당과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일당백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정치사건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안의 당조직들과 지방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한 최고지도기관.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1934년에 결성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카룬회의에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당조직건설로선을 구현하시어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고 그를 모체로 하여 당조직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온성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북부국경일대와 동만일대, 무장대오안에 각급 당조직들이 결성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시어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세우실 구상밑에 1934년 3월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부대안의 당조직들과 지방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최고지도기관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고 지도하는 조선혁명

의 참모부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 광범한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결속시켜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가일층 확대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여 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전체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한편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당내 민주주의중앙집권체원칙에 기초한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움으로써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웠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

신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전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과 각급 당조직들,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에 힘 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또한 위대한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통하여 국내와 만주일대의 조선인 거주지역들에 당조직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을 힘 있게 벌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또한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반일대중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하고 우리 당과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강력히 다져 나갔다.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의 령도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움직이는 각급 당조직들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게 되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은 더욱 즐기차게 전개될수 있었다.

정치사건

선군정치의 뿌리는 주체사상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20세기 가장 엄혹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시고 위대한 선군시대를 열어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는 자신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앞으로도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을 지키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나온 주체위업, 민족자주위업완성을 위한 특유의 정치방식이다.

민족의 자주위업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해 왔다.

지금까지 이북에서 실시돼 온 모든 노선과 정책, 정치방식은 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 있다.

바로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가 나오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투쟁 속에서 일심단결도,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도 생겨났다.

그러면 왜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민족자주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는데 있다.

이북에 흑심한 자연재해와 함께 제

국주의자들의 포악한 고립압살책동까지 겹쳐들었던 <<고난의 행군>>시기는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때 미국은 이북이 붕괴되거나 동유럽나라들처럼 <<자본주의로 복귀>>되는 어떤 정책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떠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우리는 오직 수령님 식대로 주체사상을 틀어쥐고 나갈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고 이북군민을 그 실현으로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이 나날은 주체사상으로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세계정치사에 처음으로 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인 선군정치가 창시되고 빛나게 구현되어 온 나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을 수호하고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해 나가자면 총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해나가는 특유의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었다.

이처럼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탄생하였다. 그리고 민족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완성된 정치방식으로 되었다.

그것은 다음으로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데 있다.

선군정치는 주체위업완성에서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을 오늘의 시대적 조건에 걸맞게 훌륭히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변혁운동의 기본담당자인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일데 관한 문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거머쥐고 나갈데 관한 문제 등 주체사상의 모든 원칙과 요구들이 선군정치에 의하여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고 있다.

주체사상의 요구인 자주적 입장을 견지할데 관한 문제만 보더라도 선군정치는 주체사상, 사회주의제도, 주체위업을 견결히 수호하고 빛내임으로써 통일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방식,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게 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무적의 군력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며 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주체적 힘에 의거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며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해 나가게 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펼쳐진 지난 몇년간 이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사상,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이북이 이룩한 성과들은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박소영 - 구국전선 4월 1일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오늘 진보적 인류는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영도아래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길로 역세계 매진하는 이북의 모습에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세상사람들은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방식이라고 한결같이 찬양하고 있다.

선군정치! 길지 않은 이 네 글자 속에 얼마나 큰 의미와 무게가 담겨져 있고 위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위대한 선군정치가 창시된 1990년대를 생각하곤 한다.

당시 구소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을 계기로 이북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핵사찰>>소동, 날이 갈수록 더욱 횡포해지는 제재와 고립압살책동,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이북은 유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세계가 이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엄혹한 시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대철학에 기초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고 위대한 선군정치를 실시하시어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시었을 뿐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길을 여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정치의 기본사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정치방식이라는데 있다.

사회주의정치의 기본사명은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있다. 선군정치는 바로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철저히 옹호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정치방식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완성된 사회주의정치이다.

주체사상은 근로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히었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근로대중의 운명은 저절로 지켜질 수 없다. 강력한 총대가 없으면 근로대중의 운명은 농락당하기 마련이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거머쥐고 역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면서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 나가자면 총대를

중시해야 한다.

총대에 의해 근로대중의 운명이 지켜지고 개척되며 그 미래가 약속된다는 것은 주체사상에 의해 밝혀진 혁명의 원리이며 총대중시사상이다.

선군정치에는 총대중시사상이 오늘의 시대적 환경에 맞게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선군정치는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창시된 정치방식이며 어느 고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독특한 정치방식이다.

사회주의에 관한 선행이론은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노동자계급을 선봉에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어길 수 없는 하나의 철칙으로 공인되어 왔다.

인류정치를 돌이켜 보면 각이한 정치방식이 출몰했으며 그중에는 군사를 중시한 정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정치방식들은 어느 것이나 다 군대를 한갓 정치의 수단으로 여겼지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으로는 보지 못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서도 군대는 조국보위기능만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창조와 건설과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행고전과 사회주의의 역사에 구애되지 않으시

고 김정일주석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어 선군을 정치이념, 혁명노선으로 굳히시고 하나의 완성된 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시었다. 이것은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정치의 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류정치사에 쌓아올린 최상의 공적으로, 역사에 길이 빛날 세계사적 업적으로 된다.

오늘 선군정치는 세계 진보적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인하는 21세기 사회주의정치방식의 표본으로 되고 있다.

선군정치의 위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으로 인해 산생된 준엄한 시련과 난국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차게 전진하는 이북의 모습을 통해 뚜렷이 실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선군정치를 실시하고 계시기에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이 수호되고 있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융성변영이 기약되고 있다.

21세기는 위대한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세기로, 선군의 기치아래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이 빛나게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세기로 될 것이다.

구국전선 4월 11일

선군정치에 조국통일이 있다

우리 민중은 선군정치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해 주시는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것은 선군정치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자주정치이고 민중에게 행복을 안아오는 행복의 정치이며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참정치이기 때문이다.

선군정치가 있어 오늘 민족의 안녕과 조국의 통일은 확고히 담보되어 있다.

조국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적 대단합을 실현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액을 하나로 잇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조국통일이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



을 되찾는 문제라는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는 6.15남북공동선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영도로 이루어진 알찬 결실이라 하겠다.

자주정치의 정화라 할 수 있는 선군정치만이 우리 민중을 미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 민족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한다. 바로 선군정치에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있는 것이다.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이 땅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온 삼천리강토가 초토화되고 만다. 아마 이 땅은 잿더미 속에 묻혀 황량한 폐허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남민중은 선군정치의 덕을 보아도 크게 보고 있다.

선군정치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성업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선군정치로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는 주체84(1995)년 1월1일 군사철에서 여실히 확인되었다.

그분께서는 민족최대의 국상이후 첫 현지도를 군부대시찰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며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정치비전의 제시라는 시대적 의미를 갖는 선군정치의 역사적 행보를 펼쳐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은 확정적이라고, 강대한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의 큰 자랑이라고 언명하시었다.

선군정치를 통한 민족통일은 막강한 군력에 의거한다고 하여 무력통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남에서는 군사문제와 결부시켜 통일을 논하면 의례히 북침무력통일을 뜻하는 것이지만 선군정치는 반대로 군사문제와 통일을 결부시킬 때 그러한 북침무력통일기도를 저지시키고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정치이다.

한마디로 선군정치는 인민군대의 총대위에 통일의 전제인 평화가 있다는 그것이다. 이러한 선군정치로 자주, 평화통일실현을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불면불휴의 선군영도로 이북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군강화에 기울으신 장군님의 노고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분께서는 지난해에만도 3만여

의 전선길을 이어가시며 1백30여개 단위의 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셨다 한다. 그것도 족자와 주먹밥으로 낮과 밤을 보내시고 비바람, 눈바람을 맞으시며 휴일도, 명절날도 없이 말이다.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온 겨레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통일성업실현에로 이끌어주는 인덕정치, 광복정치이기도 하다. 선군영도의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그분께서는 우리 이남의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연예인 등 각 계층 인사들과 통일운동가들을 따듯이 만나주시고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야 한다시며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사랑과 은덕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금강산의 관광길도 열어주시어 조국의 향취를 마음껏 느끼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분단상상 처음으로 되는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남북농민통일대회, 6.15민족통일대토론회, 8.15민족통일축전 등 민족단합의 역사적 새장을 펼쳐주시며 7천만 온 겨레를 조국통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려일으켜 주시었다. 결국 선군정치는 민족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걸맞게 그리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인 것이다. 선군정치에 민족의 최대속원인 조국통일이 있고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선군정치로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이룩되고야 말 것이다.

박남순 - 구국전선 4월 11일

영원한 태양절

1912년 4월 15일
역사에 아로새겨진 이날은
세기의 위인이신 **김일성**동지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전설적인 날이어라

유구한 역사에서
인류가 맞이한 이날은
장엄한 태양의 해돋이로
온 누리가 밝아온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날이어라

해마다 만민이 경사로 맞는 이 날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그리며
영광의 꽃다발 삼가 드리고
경모의 노래 삼가 드리는
영원한 태양의 명절이어라

이날에 시작되었어라
꽃피는 만경대의 일만경치와 더불어
동방조선의 새봄이
약동하는 세상만물과 함께
자주궤도의 새봄이

이날 있어 어둠던 조선에
조국광복의 서광이 비치고
희망의 붉은 노을 펼쳐졌어라

빛나는 이날이 있어
식민지 멍에에 짓눌렸던 민중들이
새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리니

정녕 태양절, 이날이 있어
아름다운 조선의 강산에
민중의 염원이 활짝 꽃피나고
선군의 총창 높이 치켜든
조선의 병사들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여라

흙모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온 세상에 울려퍼지는 태양절
자주, 친선, 단결의 노래와 함께
영생불멸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끝없이 메아리치는 태양절이어

야! 언제나 인류의 마음속에
기리 빛나는 4월의 태양절
이 땅에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세계는 맞이하고 또 맞이하리라
태양절,
영원한 인류의 명절이어!